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2025~2027)

-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

정의 및 범위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은 다수 및 다종의 무인항공기(UAV)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전망

- 세계 시장: 2022년 약 11억 6,700만 달러 → 2028년 35억 3,600만 달러 (연평균 성장률 20.3%)
- 국내 시장: 2022년 54억 원 → 2028년 152억 원,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18.8%)

제품동향

- AI 기반 비정상 상황 탐지, 실시간 영상 분석, 비행 경로 최적화 기술이 고도화
- 클라우드형 관제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확장성과 유지보수 효율이 향상

기술동향

- 5G·위성통신 기반 고신뢰 통신망 구축으로 비가사권 비행 안정성 확보
- 정밀 센서 융합 및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고도화
- AI·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예측 분석 기술 부상

핵심기술

- AI 기반 다중 UAV 관제·충돌회피 기술
- 통합 데이터 플랫폼 및 클라우드 관제 기술
- 위치정보 정밀 보정 및 GPS 재밍 대응 항법 기술
- 실시간 영상 분석 및 위험 상황 자동 판단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AI 기반 비행 데이터 분석 및 통합관제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운용 효율성 확보
- 5G·위성통신 융합형 통신 모듈 개발로 안정적 데이터 전송 구현
- 클라우드 기반 관제 SW 및 시각화 시스템 개발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강화

1. 개요

◎ 정의

다수 및 다종 무인비행체 운용 및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의미하며, 실시간 데이터 수집, 임무 계획, 비행 제어 및 상황 모니터링을 지원

- 다양한 비행체 간의 상호작용 및 협력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단일 플랫폼에서 다수의 UAV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무인비행체 관제 시스템은 고신뢰성, 실시간 데이터 처리, 유연한 확장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다수의 UAV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

- (고신뢰성 통신 체계)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UAV와 관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 신뢰성을 확보하며, 무선통신과 위성통신을 병합하여 데이터 전송 손실 최소화
- (실시간 데이터 처리) 고성능 프로세서와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비행체의 상태 정보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 및 시각화
- (다중 UAV 제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해 여러 UAV를 동시에 관리하며, 비행 경로 조정과 임무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설정 가능
- (충돌 방지 및 안전성 강화) 정밀 센서 데이터와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통해 UAV 간 충돌을 방지하고, 비행 안전성을 극대화
- (모듈형 확장성) 관제 시스템을 다양한 UAV 플랫폼과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새로운 센서, 통신 장비, 알고리즘 등을 손쉽게 추가 가능

◎ 필요성

다중 무인비행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 필요성

- 무인비행체의 활용 범위가 군사, 물류, 농업, 재난 관리 등으로 확장되면서 다중 기체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
- 다중 비행체 간 충돌 방지 및 비행 경로 최적화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관제 시스템 개발 필요
- 기존 관제 시스템은 단일 기체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다중 기체 동시 제어 및 실시간 데이터 통합 분석 기능이 미흡함
- 비가시권 비행(연속 비행 및 장거리 비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인비행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 증대

- 실시간 데이터의 시각화와 시뮬레이션 기능은 도시 운영비용 절감과 리소스 활용도 향상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

글로벌 무인비행체 시장 성장과 경쟁력 확보 필요성

- 무인비행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첨단 관제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경쟁 심화
-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며 시장 선점 경쟁 중
- 한국 무인비행체 기술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통합관제 시스템 기술은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 존재
- 독자적인 통합관제 기술 확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무인비행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 존재

데이터 기반 관제 기술과 AI 활용의 필요성

- 무인비행체의 고도화 및 자동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도입 필요
-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기체의 위치, 상태, 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
- 딥러닝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충돌 예측, 비행 경로 최적화, 비상 상황 대처 기술 개발 필요
-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통해 환경 변화 및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관제 가능

◎ 가치사슬

관련 산업 생태계는 설계 및 개발, 제조 및 조립, 통합 및 검증,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인비행체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기술, 관제 기술, 네트워크 관리 기술 등이 핵심 기술로 작용

(후방산업)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센서, 통신 모듈, 데이터 처리 장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개발 및 생산하는 단계로, 전자부품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통신 기술 산업 등이 포함

(전방산업) 완성된 통합관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인비행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계로, 물류 및 배송, 군사 및 국방, 재난 구조 및 농업 관리 산업 등이 포함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품목 산업구조

| 후방산업 |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 전방산업 |
|---|---|---|
| 센서 기술, 통신 모듈 제조, 데이터 처리 칩,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장비 산업 | 데이터 통합 플랫폼, 실시간 관제 소프트웨어, 자동화된 통신 시스템, 관제용 하드웨어 | 물류 및 배송 서비스, 군사·국방 시스템, 재난 구조 서비스, 스마트 농업 시스템 |

2. 환경 분석

◎ 시장 현황 및 전망

1) 개황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시장 수요 증가

- 드론 및 무인비행체 활용이 물류, 농업, 군사, 재난 관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급증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
- 국가 및 지역별로 드론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 통제형 관제 시스템 구축이 활발
- 도시 항공 모빌리티(UAM)의 활성화와 드론 배송 서비스 확대에 따라 실시간 위치 추적, 비행 데이터 관리,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춘 통합관제 솔루션의 필요성 확대

공공 및 상업용 드론 운용 확대에 따른 시장 성장

- 각국 정부의 드론 운용 정책과 공공 프로젝트에서 통합관제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 요소로 활용
- 재난 구호, 환경 모니터링, 치안 및 국방 분야에서 드론 운용량 증가와 함께 통합관제 시스템 시장이 동반 성장 중
- 상업용 드론 운용에서는 물류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관제 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드론 운용의 안전성과 법규 준수 강화

기술 고도화 및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 확산

-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경로 최적화, 실시간 위험 예측 등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관제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
-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이 기존의 독립형 하드웨어 중심 시스템을 대체하며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
- 통합관제 시스템이 다수의 드론 및 무인비행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멀티 드론 제어 및 분산 관제 기능으로 발전하며 시장 경쟁 심화

주요 기업 간 시장 선점 경쟁 심화

- DJI, Parrot, Lockheed Martin, Airbus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 강화
-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방위산업 중심 기업들이 관제 시스템 개발에 나서며 시장 진입

2) 관련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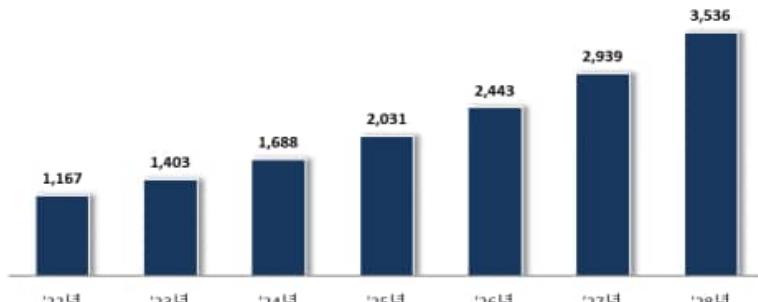
① 세계 시장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1,167백만 달러에서 2028년 3,536백만 달러로 연평균 20.3%의 성장률로 증가할 전망

- ▶ 북미와 유럽이 UTM 표준화와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도 스마트 시티와 AAM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 시장을 확대 중
- ▶ 드론 배송, 도심 항공 교통(UAM)의 안전과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규제 정비, 기술 표준화, 글로벌 협력이 주요 과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CAGR ('22년~'28년) |
|------|-------|-------|-------|-------|-------|-------|-------|------------------|
| 세계시장 | 1,167 | 1,403 | 1,688 | 2,031 | 2,443 | 2,939 | 3,536 | 2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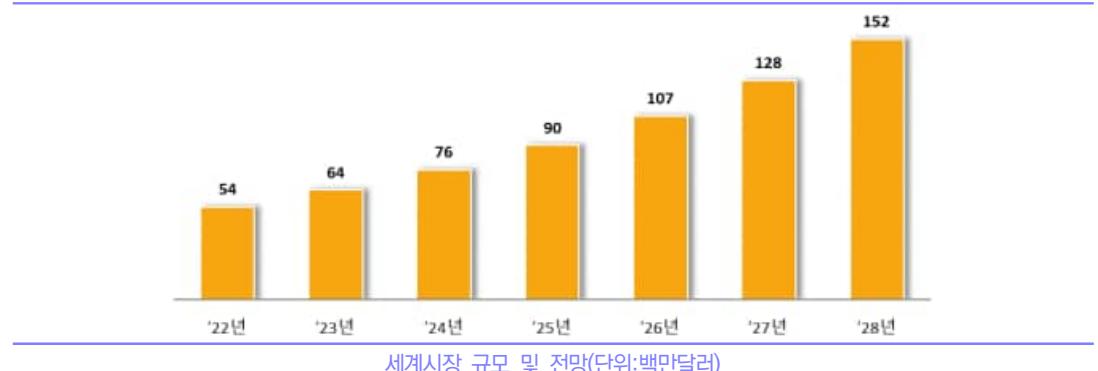
② 국내 시장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54억 원에서 2028년 152억 원으로 연평균 18.8%의 성장률로 증가할 전망

- ▶ 정부의 K-UAM 로드맵 사업 추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주요 기술로는 실시간 비행 경로 관리, 충돌 방지 시스템, 5G 기반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통합 플랫폼 등이 포함
- ▶ 우리나라는 5G 및 IT 강국으로서 UTM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이 크며, 규제 정비, 표준화 작업, 안전성 확보가 시장 확장의 핵심 과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단위: 억원, %)

|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CAGR ('22년~'28년) |
|------|------|------|------|------|------|------|------|------------------|
| 국내시장 | 54 | 64 | 76 | 90 | 107 | 128 | 152 | 18.8% |



◎ 기술개발 동향

다수의 UAV 통합 운용

- (군집 비행 기술) 여러 대의 드론이 협력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 이를 통해 물류, 농업, 재난 대응 등에서의 효율성 극대화 가능
- (분산형 관제) 중앙집중식 관제가 아닌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각 무인비행체 간의 통신 및 자율적인 작업 분배.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 (자율비행 및 경로 최적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율 비행 경로 설정, 장애물 회피 및 실시간 환경 변화 대응
- (비정상 상황 탐지) 비행 중 비정상적인 상황(배터리 이상, 통신 두절, 비행 오류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통합

- (무인 항공교통 관리) 도심 내 드론과 유인 항공기를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 (공역 관리 통합) 드론과 기존 항공기의 안전한 공역 사용을 위한 통합 공역 관리 솔루션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빅데이터 및 IoT 연계) UAV가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분석 및 시각화
-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긴급 상황 대응과 모니터링

보안 및 규제 강화

- (드론 보안 표준화) 무인비행체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 표준 개발
- (정부 및 민간 규제 지원) 각국 정부의 드론 운용 규제와 기술 개발 방향을 통합하는 기술 구현

1) 해외기업

무인항공기 운용 시의 비행 안전성 향상 관점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실증 추진

(AirMap) 무인항공기(UAV) 운영을 위한 공역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는 통합관제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특히,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하여 무인항공기 교통관리(UTM) 시스템 개발에 참여

(Boeing)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를 넘어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통합관제 솔루션 개발에 주력 중으로 특히, 무인항공기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유인 및 무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 중

(PrecisionHawk) 드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무인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 중

(Thales) 무인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NASA와 함께 무인항공기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

(Airbus) 유럽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 무인항공기 및 도심항공교통(UAM)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 UTM(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인비행체의 안전한 운용을 지원

➤ EU의 SESAR(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규모 UAM 실증사업을 추진 중

(Altitude Angel)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드론을 위한 UTM 플랫폼을 개발하여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공역 관리를 지원

(Frequentis)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항공 교통 관리 및 공공 안전 통신 솔루션을 제공, 드론 통합 운영을 위한 UTM 시스템을 개발하여 유럽 내 여러 국가의 드론 교통 관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인비행체 운용을 지원 중

(DJI) 최근 산업용 드론과 이를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에너지, 공공안전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

(EHang) 자율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심항공교통(UAM)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유인 드론 택시와 이를 관리하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개발 중

2) 국내기업

국내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업 및 공공 영역에서 드론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 중

(대한항공) 다양한 무인항공기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무인항공기 통합관제시스템(UMS)을 개발 중

- 사용자 인증, 임무계획 분석, 비행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
- 인공지능(AI) 기반의 임무 영상 분석과 증강현실(AR)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 효율성을 향상

(파블로항공) 무인비행체 및 도심항공교통(UAM) 통합관제 서비스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율 군집 비행 기술과 UAM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

- 2024년 3월경 이차전지 배터리팩 개발 전문 기업인 씨티엔에스와 드론 및 무인비행체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한화시스템) 드론 통합관제 및 네트워크 구축 개발 사업을 통해 군집·자율비행 등 중소형 드론 체계의 전문 역량을 강화 중으로, 이를 통해 소형 공격형 드론 체계 개발에 주력

(싱크테크노) 무인비행체를 사용하는 기업 및 기관의 환경에 맞춤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운용 상황, 영상 관제, 비행 제어, 기체 관리, 비행 훈련 등을 단일 환경에서 모니터링하고 연계 가능

(클로버스튜디오) 도심형 항공교통(UAM)을 위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플랫폼(GCP) 분야에서 3D 맵 기반의 인공지능 관제 소프트웨어 'DROW4D'를 개발, UATM/UTM 관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

- 한국무인기안전기술과 통합관제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약을 '22년 11월 체결

(LG U+) 드론을 포함한 5G 기반 공역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동통신 기술과의 연계를 추진 중으로 드론의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과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데 주력

3. 기술개발 로드맵

◎ 핵심 요소기술 조정

조정된 전략품목 대상으로 전문위원회를 통해 기술별 기술개발 핵심성·파급성·가능성을 고려하여 핵심 요소기술 조정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핵심 요소기술

| 구분 | 핵심 요소기술 | 개요 |
|----|--------------------------|---|
| 1 | 소형무인기용 항공 운항안전 통합 제어 기술 | 복잡한 무인기 간의 안전비행을 위해 ADS-B 관제 신호를 통하여 주변항공기 정보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충돌회피 룰(ROA)를 기반한 충돌회피 기동과 충돌경고 정보 표시기술 개발 기술 |
| 2 | 소형무인기용 GPS 재밍 대응 비행제어 기술 | 자동추적인테나의 방향정보와 비행제어-지상통제용 주적인테나 간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신호의 통달시간을 이용하여 비행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소형 무인기(드론)에 전송하여 비행제어를 위한 항법데이터로 사용케 하는 보조항법 기술 |

◎ 기술 로드맵 구축

1) 기술개발 목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기술개발 로드맵

| 핵심 요소기술 | 개발목표 | | | 최종목표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소형 무인기용 항공 운항안전 통합 제어 기술 | 신규 개발 항공기 또는 성능개량 항공기 중 대상 소형 항공기 및 지상통제 시스템 선정 및 개발 규격 확정(TRL 4단계) 기본설계 완료 및 기본설계 검토회의(PDR) 완료, 개발 진척율 30%(TRL 5단계) | PDR 후속 보완 및 성능 검증 기준 수립(TRL 6단계) 상세설계 완료 및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완료, 개발 진척율 60%(TRL 6단계) | CDR 후속 보완 및 항공관제 및 충돌회피 솔루션(H/W 및 S/W) 제작(TRL 7단계) 성능 검증 비행 관제 시험 및 평가, 개발 진척율 100%(TRL 7단계) | ADS-B를 기반으로 무인기 관제소의 관제 데이터를 100% 수신하고 통제 대상 소형 무인기(드론)에 탑재된 TCAS 모듈을 통하여 CDTI(충돌회피 정보, TA/RA 경고 포함) 신호를 수신하여 대상 무인기를 안전하게 비행도록 제어하는 솔루션 개발 |
| 소형 무인기용 GPS 재밍 대응 비행제어 기술 | 신규 개발 항공기 또는 성능개량 항공기 중 대상 소형항공기 및 지상 통제 시스템 선정 및 개발 규격 확정(TRL 4단계) 기본설계 완료 및 기본설계 검토회의(PDR) 완료, 개발 진척율 30%(TRL 5단계) | PDR 후속 보완 및 성능 검증 기준 수립(TRL 6단계) 상세설계 완료 및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완료, 개발 진척율 60%(TRL 6단계) | CDR 후속 보완 및 보조항법 솔루션 제작(TRL 7단계) 보조항법 성능 검증 비행 시험 및 평가, 개발 진척율 100%(TRL 7단계) | GPS 재밍 시에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비행제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밀 보조항법 개발 |

2) 로드맵 기획

(총론)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한 R&D 추진 시, 다중 무인비행체의 실시간 통신 및 데이터 처리, 비행 경로 최적화 및 충돌 회피, 보안성 강화 및 사이버 위협 방지, 장거리 운용을 위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에 대응 가능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구축

- **(중소기업 기술개발전략1)** 다중 무인비행체 통신 및 데이터 통합을 위한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과 네트워크 프로토콜 개발
- **(중소기업 기술개발전략2)** 비행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과 실시간 충돌 회피 기술 개발
- **(중소기업 기술개발전략3)** 통합관제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 기술 개발
- **(중소기업 기술개발전략4)** 무인비행체의 장거리 운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관리 및 전력 효율 최적화 기술 개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기술개발 로드맵

법령 제·개정 동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2025.10.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안전부문 자격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 감경을 통해 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 시 계약보증금 비율을 상향하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완화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1. ~ 11. (생략) 〈신설〉</p> | <p>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분야 인증 또는 전문인력 및 기술의 보유상태</u></p> |
| <p>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p> <p>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u>일괄입찰로</u>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p> | <p>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u>일괄입찰 또는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u>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p>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2025.10.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74호]

[제안이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항공신체검사명령·양성 및 기량유지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 및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항공신체검사명령·양성 및 기량유지 훈련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제28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호의3, 제5호의3)
- 나.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관리업무 재조정(안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삭제, 같은 조 제46호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0. (생략) 〈신설〉 18. ~ 28. (생략) 〈신설〉 |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법 제38조제2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u> 18. ~ 28. (현행과 같음) <u>28의2.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u> |



국내외 ITS

월간 토픽

2025년 10월, 국내외에서는 AI와 자율주행, ITS(지능형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AI 기반 교통안전·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지자체들은 자율주행버스와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가속화했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수소트럭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았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에 착수했다. 해외에서는 두바이·싱가포르·미국 등 주요 도시가 자율주행과 지능형 교통 인프라 실증을 확대하며 미래 교통 혁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토픽

국민이 체감하는 AI,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30.(화) 「AI 핵심 프로젝트 TF」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AI 핵심 프로젝트 TF는 부내 책임 부서(국)를 지정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로 마련되었다. 각 TF는 구체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도전적 핵심 미션을 제시하고, 실행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즉시 실행이 필요한 6대 핵심 프로젝트를 설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 창출, AI기반 과학기술 연구혁신, 공공 AI 혁신, 산업·연구·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AI 인재양성, AI 기반 시설 확충이다. 향후 TF별 심층 논의와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핵심 미션을 구체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핵심 미션 달성을 위해 추진 현황을 매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10.1.)

서대문구, 자율주행버스 10월 15일 운행 개시

서대문구는 10월 15일부터 자율주행버스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차량 2대가 서대문구청~기좌역 3번 출구 약 6km 구간을 하루 14회 순환 운행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은 최대 12명이 탑승 가능하며 안전요원 2명이 동승해 노약자 승하차 등을 지원한다. 이번 운행을 통해 홍제폭포 인근 정류소 정차로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모 선정과 국토교통부 시범운행지구 지정, 서울시 안전운행검증 통과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주)라이드플러스가 3년간 시범운행을 맡는다. (로봇신문, 2025.10.9.)

현대차 자율주행 수소트럭, 美타임 '2025 최고의 발명품' 선정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25년 최고의 발명품(Best Inventions of 2025)'에 이름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트럭은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플랫폼에 미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플러스AI의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슈퍼 드라이브'를 결합한 모델로,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중대형 트럭이다. 현대차는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장거리 화물 운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대차와 플러스 AI의 협업이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하며 트럭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운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경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5.10.10.)

페루 3개 도시 시장단, 광양 CCTV센터 방문

전라남도 광양시는 페루 3개 도시의 시장단이 광양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 스마트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리마주 산타로사시, 아푸리막주 찰와와초시, 아야쿠초주 파우카르 엘 사리사라시 시장 등 10여명이 참여해 통합관제 운영체계와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기술 등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사례를 살펴보았다. 광양시 CCTV 관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며, AI 영상분석을 통한 스마트 관제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광양시의 스마트 도시관리 역량이 해외 도시와의 협력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일보, 2025.10.12.)

TS, 'AI 교통안전 시대' 연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검사부터 도로·항공·철도를 아우르는 AI(인공지능) 적용을 통해 'AI기반 교통안전 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13일자로 'AI 전담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이사장 직속 'AI미래전략실'과 'AI디지털실'을 확대 개편했다. AI미래전략실은 AI 활용 서비스 발굴과 제도·윤리기준 관리, 정책 기획을 총괄하고, AI디지털실은 공통 플랫폼 구축과 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조직 내 AI DNA 확산을 추진한다. 공단은 연말까지 AI 공통 플랫폼 구축을 완료해 사고 예측·예방 중심의 'AI 교통안전 혁신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10.14.)

자율주행차 카메라 선명해진다…르네상스 화가들 '원근법' 활용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대학원 주경돈 교수 연구팀이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의 원근 왜곡 문제를 보완하는 인공지능 모델 'VPOcc'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술은 그림의 원근감을 표현하는 '소실점'을 활용해 영상 속 깊이와 거리를 보다 정확히 복원하도록 설계됐다. 모델은 영상 보정 모듈(VPZoomer), 원근 균형 정보 추출 모듈(VPCA), 영상 결합 모듈(SVF)로 구성돼 있으며, 도로 환경에서 멀리 있는 객체와 겹쳐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인식하는 등 기존 모델 대비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연구는 김준수·이준희 연구원(UNIST)과 미국 카네기멜론대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으며, 주 교수는 “자율주행뿐 아니라 로봇·AR 지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5.10.15.)

김용석 대광위원장, “고양창릉지구 교통시설 적기구축” 강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5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강조했다. 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7.89㎢ 규모로 약 3만8천호가 공급되며, GTX-A 창릉역 신설, 고양은평선 및 서부선 직결, 곡산~화정 연결도로 조성 등이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신도시 입주와 광역교통서비스 공급 간 시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광위는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25.10.15.)

김윤덕 장관, ‘국산 자율차가 세계 무대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컨퍼런스(WICV)’에 참석해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행사에 앞서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면담을 갖고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의 로보택시 실증 사례를 참고해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 AI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산 자율차가 세계 무대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25.10.16.)

노타AI, AI 최적화·경량화 기술로 코스닥 상장 노크

AI 모델 경량화·하드웨어 최적화 전문기업 노타AI가 내달 3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2015년 설립된 노타AI는 AI 성능을 유지하면서 모델 크기와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을 보유했으며,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AI 최적화 플랫폼 ‘네츠프레소(NetsPresso)’를 제공한다. 노타AI는 삼성·카카오·네이버·L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엔비디아·ARM 등 글로벌 기업에도 기술을 공급 중이다. 2027년 매출 336억 원, 영업이익 42억 원을 목표로 흑자 전환을 추진하며, 공모자금은 차세대 AI 시스템 경량화 기술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대한경제, 2025.10.20.)

“강릉 ITS 세계총회 1년 앞두고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23일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의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돌입했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26년 10월 19일부터 5일간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이동성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총회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홍규 강릉시장이 공동 총회장을 맡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강희업 제2차관은 “이번 총회가 한국 ITS 기술의 세계 진출과 교통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2025.10.23.)

해외 토픽

자율주행 격전지 두바이, Pony.ai, 2026년 로보택시 상용화 시동

중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포니.ai(Pony.ai)가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으로부터 로보택시 도로 시험운행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번 승인으로 포니.ai는 2026년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첫 시험 차량들이 이미 도로 운행을 개시했다. 두바이는 복잡한 교통 환경을 갖춘 자율주행 기술 검증의 최적지로 평가되며, 이번 프로젝트는 5월 체결된 RTA와의 협력 협약의 연장선이다. 포니.ai는 현재 중국 주요 도시를 비롯해 한국, 싱가포르, 럭셈부르크, 카타르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 중이다. (엠투데이, 2025.9.30.)

웨이모 자율주행차, 불법 유턴했지만 캘리포니아 경찰 ‘벌금 부과 불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브루노 경찰이 불법 유턴을 한 웨이모(Waymo) 자율주행차를 정지시켰지만, 운전자가 없어 벌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경찰은 차량 내 장치를 통해 웨이모 측에 ‘시스템 오류’를 보고했으며, 회사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교통법 집행 체계의 부재를 드러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 위반에 대해 ‘비준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tti, 2025.10.2.)

싱가포르, 첨단 지능형교통체계(ITS)로 스마트 모빌리티 구현

싱가포르는 육상교통청(LTA)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사고 대응, 혼잡 완화 등 스마트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2030’ 로드맵에 따라 운영되는 ITS의 핵심은 통합 교통 플랫폼 iTransport로, 센서·카메라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정책과 운영을 지원한다. 24시간 운영되는 ITS 관제센터(OCC)는 사고 발생 시 경찰소방 등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며, EMAS 시스템을 통해 사고 탐지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수행한다. 또한 GLIDE 신호제어 시스템은 실시간 수요에 맞춰 교통신호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J-Eyes 교차로 영상감시망, PGS 주차안내시스템, TrafficScan 택시 GPS 기반 교통속도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싱가포르 LTA, 2025.10.22.)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5.10.27.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 업무 | 공고명 | 수요기관 | 설계가격(원) | 입찰마감일 |
|------|---|-----------------------|---------------|---------------|
| 기술용역 |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6,897,000,000 | 2025. 11. 10. |
| 일반용역 | 「2023년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감리 용역 |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 220,000,000 | 2025. 11. 13. |
| 일반용역 | 2026년 평택시 ITS 통합 유지관리용역 | 경기도 평택시 | 810,417,080 | 2025. 11. 14. |
| 일반용역 | 2026년 이천시 교통정보센터(첨단신호 및 ITS) 운영유지관리 용역 | 경기도 이천시 | 600,000,000 | 2025. 11. 14. |
| 일반용역 | 2026년 아산천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470,428,340 | 2025. 11. 18. |
| 일반용역 | 2026년 이천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관리 용역 | 경기도 이천시 | 312,700,000 | 2025. 12. 03.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업무 | 공고명 | 수요기관 | 설계가격(원) | 입찰마감일 |
|----|------------------------------|------|-------------|---------------|
| 용역 | [긴급]2026~27년 교통예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본사 | 770,462,000 | 2025. 11. 11. |

2025년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일반사항

- ◎ 사업명 : 2025년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 사업예산 : 6,897,000,000원 (부가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배경 및 목적

- ◎ 강릉시는 2020년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중기단계의 서비스 질적 향상 및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와 더불어 당해 사업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가 필요한 단계임
- ◎ 이를 위해,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으로 이용자 체감형 ITS 서비스 확대, 이동형 차량기반 실시간 교통 관리시스템 구축, AI기반 위험도로 예측 서비스 등의 중소도시형 ITS 패러다임 선도를 위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사업범위

- ◎ 공간적 범위 : 강릉시 관내(ITS 세계총회장 및 주요도로), 도시정보센터
- ◎ 내용적 범위 : 현장시스템(이용자 체감형 ITS 서비스, ITS 빅데이터 기반 도시관리, 자가통신망), 센터시스템(H/W, N/W, 응용 S/W), 성능평가 등

문의처

- ◎ 강릉시 특별자치추진단 ITS추진과(033-640-4520)

「2023년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감리 용역

일반사항

- ◎ 사업명 : 2023년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감리 용역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05.31.
- ◎ 사업예산 :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배경 및 목적

- ◎ 국토교통부 공모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목포시 선정
- ◎ 해양도시로서의 목포시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로 인한 다양한 환경 문제점들이 있으며, 또한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지역소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 목포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의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 조성
- ◎ 시민의 참여 유도와 데이터를 통한 DB 구축,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지향

사업범위

- ◎ 시간적 범위 : 2023. 9 ~ 2026. 6.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

문의처

- ◎ 동해종합기술공사 ICT사업1부 (02-3496-0421)

2026년 이천시 교통정보센터(첨단신호 및 ITS) 운영유지관리 용역

일반사항

- ◎ 사업명 : 2026년 이천시 교통정보센터(첨단신호 및 ITS) 운영유지관리 용역
- ◎ 용역기간 : 2026. 1. 1. ~ 12. 31.(12개월)
- ◎ 용역비 :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배경 및 목적

- ◎ 이천시 교통정보센터 첨단신호 및 ITS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최상의 성능유지를 위해 전문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와 용역을 체결함으로써 고품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관내 교차로별 교통신호정보가 교통정보센터 내 통신·제어서버 등 시스템에 연계되어 모니터링, 조정 변경 등 효율적 관리 필요
- ◎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사업범위

- ◎ 시간적 범위 : 평일(09시~18시, 8시간 근무) 상주근무, 이외의 시간은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 하여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 초동 조치함
- ◎ 공간적 범위 : 이천시청 내 교통정보센터, 이천시 관내 주요도로 및 교차로
- ◎ 내용적 범위 : 첨단신호제어시스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문의처

- ◎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교통팀(031-644-2442)

ITSK NEWS

ITS Korea, 부천시 리빙랩 통해 교통 탄소중립 모델 실증 추진(10.22)



ITS Korea는 2025년 10월 22일(수), 부천시에서 부천시(시장 조용익),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와 교통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실증(리빙랩)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구체적 실증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ITS Korea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 분야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부천시 리빙랩은 그 연구성과를 실제 도시 환경에서 검증하는 첫 단계이다.

허정희 ITS Korea 회장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이 데이터로 검증되는 교통 탄소감축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부천시, 부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좌담회 개최(10.29)



ITS Korea는 2025년 10월 29일(수) 안양 ITS Korea 회의실에서 주요 자율주행 회원사와 함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정부의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회원사의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형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서 ITS Korea는 C-ITS 로드맵과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실증사업의 중요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각 기업의 주요 사업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자율주행과 ITS 간 기술·인프라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TS Korea 허정희 회장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자율주행과 ITS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형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TS Korea, 2025 한국 ITS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10.31)



ITS Korea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ITS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반 ITS 혁신을 주제로 총 6개 특별세션을 주관하고, 미래 교통 핵심기술과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통·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관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자율주행·디지털도로·탄소중립 등 ITS 산업 전반의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루며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ITS Korea 허정희 회장은 ITS 발전과 학회 간 협력 강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ITS학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허 회장은 그동안 ITS 산업의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허정희 회장은 “그동안 학회와 협회는 늘 함께 성장해온 든든한 동반자였다”며 “앞으로도 기술이 정책으로, 연구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혁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